

제56기 공군사관생도 1차 선발시험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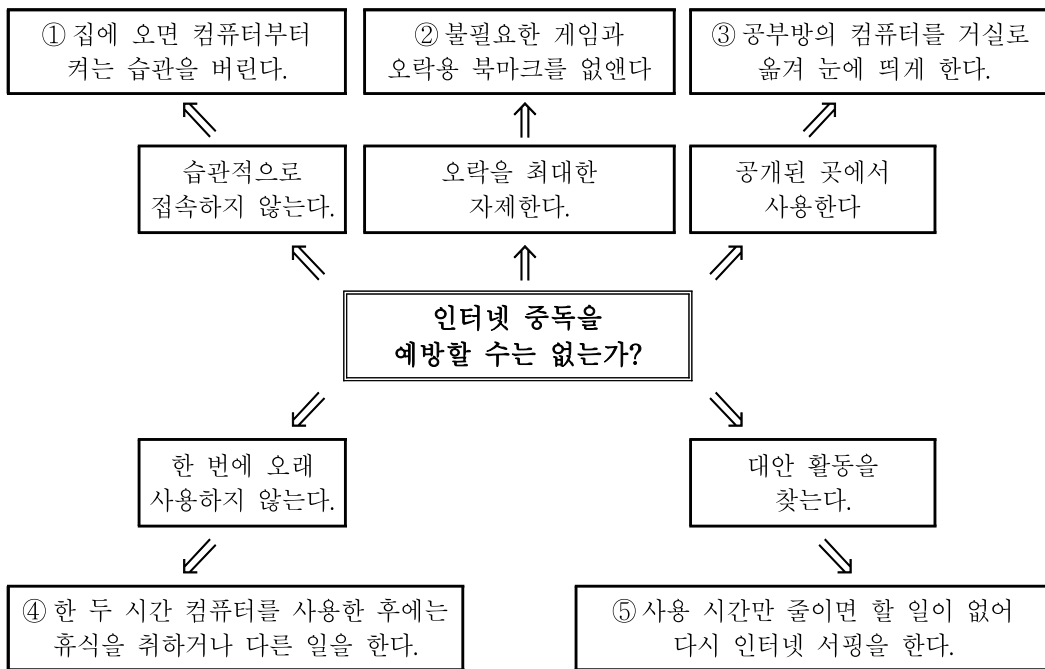
언 어 영 역

제 1 교시

공 통	성명		수험번호							A 형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문형(A형), 지원분야를 표기하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시오.)

1.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컴퓨터 사용법’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구체화하여 내용을 전개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 내용을 서두로 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 증가가 뚜렷하다고 한다.

- ① 흡연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준다.
- ② 흡연과 폐암 발생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의사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 ③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촉구한다.
- ④ 여학생들의 흡연 동기는 남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⑤ 청소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대중 매체에서의 흡연 장면을 삭제하도록 한다.

3. 아래 개요로 보아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제 목 : 핵전쟁과 인류의 미래

서론 : 핵전쟁이 인류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

본론 : 핵전쟁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책

I. 핵무기를 사용할 때의 피해

1. 방사능에 오염된 핵면지로 인한 피해
2. 핵폭발 후 대화재로 인한 피해
3. (㉠)

II. 핵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

1.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2. 핵확산 금지 조약을 통한 노력
3. 국제적인 반전, 반핵 운동

결론 : (㉠)

- ① ㉠ 핵실험의 위험성
㉡ 핵전쟁의 심각성과 국제 분쟁 해결 노력의 필요성
- ② ㉠ 핵겨울의 치명적 피해
㉡ 핵전쟁의 치명적 위험과 핵전쟁 방지 노력의 필요성
- ③ ㉠ 미국의 대화재 때 나타난 환경 피해
㉡ 핵전쟁의 심각성과 반전, 반핵 운동의 필요성
- ④ ㉠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
㉡ 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핵전쟁 방지 노력의 필요성
- ⑤ ㉠ 핵폭풍으로 인한 피해
㉡ 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국제 분쟁 해결 노력의 필요성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꾼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4)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睡眠)의 강(江)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記憶)의 들판에,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①깜깜한 절벽(絶壁),
헤어날 수 없는 미로(迷路)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하는 화약(火藥) 냄새 소용돌이.
전쟁(戰爭)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恐怖)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후(邂逅)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焦燥)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축축히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②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 정한모, <나비의 여행>

(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계처럼 작렬한 작은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③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④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과 조수에 밀려
이제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그 어느 ⑤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 김규동, <나비와 광장>

4. (가)~(다)에 그려진 시적 대상을 <보기>에서 적절하게 고른 것은? [3점]

<보 기>

- ㉠ 부정적 현실에서 좌절하는 순수한 존재
 ㉡ 부정적 현실과 대결하는 순수한 존재
 ㉢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하는 순수한 존재
 ㉣ 부정적 현실에서 보호받는 순수한 존재

(가)

(나)

(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5. (가)의 **바다**와 이미지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a)갸름한 절벽
 ② b)사나운 골짜기
 ③ c)허망한 광장
 ④ d)과묵한 묘지
 ⑤ e)마지막 종점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나)에서 아가는 ‘나비’로 형상화되고 있다.
 ② (가)의 ‘나비’는 수동적이지만, (나)의 ‘나비’는 능동적이다.
 ③ (가), (나) 모두 ‘떠남 - 시련 - 돌아옴’의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다.
 ④ (가)의 ‘나비’의 시련은 ‘바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7. (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흰나비’는 시적 화자를 대신하는 존재야.
 ② 전쟁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어.
 ③ 전쟁의 아픈 기억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하고 있어.
 ④ 죽음에 직면한 화자의 절박한 한계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
 ⑤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8. (다)의 시어들을 이용하여 (다)와 주제 의식이 일치하도록 <보기>와 같이 4행시를 지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향기로운 꽃동산을 너울너울 날고 싶은데
보이는 건 침묵한 묘지 피문은 통곡들

- ① 희망조차 불타 버린 허망한 광장에서
방향 잃고 해매는 가없는 나비의 꿈
- ② 불길 같은 인광과 숨가쁜 조수에 밀려
조금씩 이즈러지는 나비의 하얀 날개
- ③ 작열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꿈꾸듯
현기증 나는 활주로에서 꽃향기를 그리네
- ④ 신도 기적도 승천해 버린 메마른 땅이지만
언젠가 쏟아질 빗줄기 그리며 목마름을 달래네
- ⑤ 뜨거운 불길 세찬 바람에 찢겨지고 부서져도
아름다운 땅 그리며 다시 펴는 나비의 날개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직에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는 것이 국가의 본래 의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아무래도 문벌(門閥)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구분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한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운 눈썹과 눈을 사랑하고 오줌 누는 것을 미워하여 사흘 동안 오줌을 누지 않는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몸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이고 나의 신체 아닌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현령(縣令)이란 자리는 똑같은 직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개 읍은 이 당파의 자리이고, 아무개 읍은 저 당파의 자리라고 한다. 이것은 관직의 좋고 나쁨의 표준이 관직 자체에 있지 않고 고을살이의 수입이 후한가 박한가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관각(館閣)의 벼슬아치는 똑같은 자리이다. 그렇건만 아무개가 그 자리에 가면 더욱 높아 보이고, 아무개가 그 자리에 가면 조금 낮아 보이는 실정이다. 이것은 벼슬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관직 자체에 있지 않고 문벌의 높고 낮음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직에 과연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단 말인가? 옛날에는 좋은 벼슬이었던 것이 지금은 나쁜 벼슬이 되었고, 옛날에는 나쁜 벼슬이었던 것이 지금은 좋은 벼슬이 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을 실제로는 믿을 수가 없다. 설사 관직에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너도나도 좋은 직책은 반드시 얻으려고 다룰 것이고, 반면에 나쁜 직책은 반드시 피하려고 할 것이다. 다투면 서로를 쓰러뜨리려 들고, 피하면 어떤 직책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당파를 만드는 습관이 군주 아래에 있는 신하들 사이에서 형성되면 위에 군림한 군주에게 권한이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군주가 무엇이 즐겁다고 임금 노릇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관직에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는 것이 국가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대저 관직에는 반드시 녹봉이 있다. 그리고 녹봉은 반드시 경작을 대신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다음에야 관리에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노비를 굶긴 채 날마다 부려먹었다고 하자.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을 노비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관직의 관리는 대개의 경우 그가 가진 권세를 이용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고 그 힘을 빌어 사람들에게 판다. 그러므로 권세가 있는 자리는 아무리 작은 직책이라도 뇌물을 받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권세가 없는 자리는 비록 대신(大臣)이라 하더라도 규정된 녹봉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에조차 녹봉이 턱없이 모자란다.

또 고을 지방의 관리에게는 정해진 봉급이 없다. 그래서 현령이나 현감(縣監)이 큰 고을의 목사(牧使)보다도 열 배나 넉넉하게 수입을 거두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치가 닿는 일인가? 더구나 내직(內職)의 녹봉이란 것이 벼슬을 믿고서는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다 보니, 사대부는 처음부터 외직을 중시하고 내직을 가볍게 여긴다. 한번 주현(州縣)의 관원이 되면 반드시 여러 대의 자손을 위한 자산을 장만하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탐학(貪虐)과 *독직(瀆職)의 기풍이 날로 성행하고, 따라서 만백성의 생활이 나날이 곤궁한 처지에 몰린다.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독직(瀆職) : 직책을 더럽힘

9.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당대 현실의 모습이 아닌 것은? [2점]

- ① 사람들은 수입이 많은 고을의 현령 자리를 선호하였다.
- ② 지방 관리의 지나친 수탈로 곤궁에 빠진 백성들이 많았다.
- ③ 동일한 직책에 있는 지방 관리들은 동일한 녹봉을 받았다.
- ④ 직책을 맡은 사람의 문벌에 따라 관직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
- ⑤ 권세가 없는 자리의 관리는 녹봉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10. 밑글의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문제 상황의 원인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시사하고 있다.
- ②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에 대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문제가 되는 현실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11. <보기>의 자료에 대해 글쓴이가 보였을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중국에서는 비록 구품(九品)의 직책에 끼이지 못하는 관리도 그 봉급이 우리나라의 대신보다 많다. 지방의 관원에게는 일상적인 녹봉 외에 직무와 등급을 감안하여 따로이 은전을 주는 양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취임할 때나 퇴직할 때 생계를 마련할 재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한 다음 1백 켤미 이상의 재물을 모은 관리에게는 뇌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① 낮은 관직의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녹봉을 받는군.
- ② 관리들이 축재(蓄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군.
- ③ 직무와 등급보다는 능력에 따라 녹봉을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군.
- ④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군.
- ⑤ 국가의 세금을 관직의 녹봉에 다 써버리니 백성들의 삶이 힘들겠어.

12. ㉠과 같은 방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3점]

- ① 나는 지금까지 너를 믿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야.
- ② 이 자동차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동차는 성능이 뛰어남이 분명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구입하십시오.
- ③ 가랑비라도 오래 맞으면 옷이 젖는다. 작은 규모의 소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소비가 계속되면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강아지는 오줌을 누어서, 하마는 물 속에 똥을 풀어서, 곰은 나무에 상처를 내어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한다. 이로 보아, 동물들은 영역 수호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 ⑤ 언어는 그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거친 표현이 늘어가고 있다. 이로 보아 현재 우리 사회가 거칠어져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은 소작인으로서는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앓고 기다렸다. 농사 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이내 모자랐든지, 머슴 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 나오는 통에, 대문밖에 죄인처럼 쭈그러뜨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키었다.

작인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어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 서방은 지난 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헴, 에헴, 에---헴!”

치삼 노인도,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뱉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그제 자기 집농사 사정을 여쭙어 보려고 했다.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소. 메밀을 갈았으면 메밀을 간 세만 내면 되지 않겠소?”

이시봉은 거만스런 반말로써 사정없이 쏘았다.

치삼 노인은 다시 말해 볼 여지가 없었다.

“여보, 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법이 아니오. 괜히 남 술맛 떨어지게!”

겉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핀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의 권하는 말에 치삼 노인은 다행히(!)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허 참, 복 받겠다고 멀쩡한 자기 논 시주해 놓고 저런 설움을 받다니 온!’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 체 만 체, 뼈만 왈왈 떨리는 다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수네 집 대문 밖에, 노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어서 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더러는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잡담이나 하고 고누나 두던 늙은 친구들도 나중에는 역시 불평이 나왔다.

“제에기, 간평을 나온 겐가, 술을 먹으러 나온 겐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머리끝이 희끔희끔한 친구가 이렇게 불통하니깐, 겉에 있던 까만 딱지가,

“글쎄 말야, 이것들이 또 논을랑 둘러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료를 정할 것 아닌가?”

“제에기, 우, 우리 논에는 또 안---가겠군. 자---작년에도 앉아서 세만 자---자 잔뜩 매더니…….”

봉구란 놈도 한 마디 보태었다.

“설마 자기들도 사람인 이상 금년만은 무슨 생각이 있을 테지!”

한 시절 보천교에 미쳐서 정감록이 어떠니 하고 다니던 최 서방의 말이다. 삼십을 겨우 지난 놈이 아직도 상투를 달고, 거짓말 싱거운 소리라면 ‘소진장의(蘇秦張儀)’라도 못 따를 것이고, 한동안 보천교에 반했을 때는 ‘육조판서’가 곧 된다고 허풍을 치던 위인이다.

“이 사람 판서,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걸세. 생각은 무슨 생각! 자네 판서나 마찬가지로지 뭐.”

툭 쏘는 놈은, 일본서 탄광밥 먹다 온 까만 딱지 또쭤이었다.

이윽고 술이 끝났다. 모가지 째까지 벌겋도록 취해서 나서는 간평원들! 금테 안경을 쓴 진수 아내가 사립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자, 그들은 인도하는 진수의 뒤를 따라서 단장과 함께 비틀거렸다. 그러한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노랗고 여윈 소작인들이 마치 유형수(流刑囚)처럼 묵묵히 따랐다.

술취한 양반들에게 옳은 간평이 될 리 없었다.----그거 작인들의 말은 마이동풍 격으로, 논두렁에도 바투이 들어서 보는 법도 없이 다만 진수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왜말을 주절거리면서, 그야말로 처삼촌 산소 별초하듯이 흐지부지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짐짓 성실한 듯이 이따금 단장을 쳐들어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들개의 눈 곁을 지날 때였다.

“왜 메밀을 갈았소?”

시봉은 들개의 수인사 대답으로 이렇게 물었다.

“헐 수 있어야죠. 마른 모포기 기다렸댔자 열음 앓을 게고……”

들개는 한 손에는 콩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열 적게 대답했다.

㉠“메밀은 잘 됐구먼.”

“필요. 이것도 늦게 뿌려서……”

들개는 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 김정한, <사하촌>

13. 윗글을 읽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2점]

- ① 술상과 고기 안주를 두고 열큰하게 취한 중들의 모습
- ② 진수가 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작인들을 위로하는 모습
- ③ 소작인들이 대문 밖에서 눈치를 보며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
- ④ 소작인들이 술 마시는 간평원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
- ⑤ 간평원들이 술에 취해 대충대충 눈을 둘러보며 지나가는 모습

14. 이 작품을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에서는 작품과 작품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중시하기도 한다. 이때 작품은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 ① 이 작품에는 일제 강점기 하의 모순된 농촌 현실 속에서 가뭄과 지주의 무자비한 횡포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
- ② ‘또쭤이’, ‘들개’라는 토속적인 이름들에 상당히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농촌에서 살고 있는 순박한 농민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
- ③ 가뭄과 착취의 현실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 ④ 특정한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농촌 현실의 모순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민들 전체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야.
- ⑤ 작가의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뛰어난 작품인 것 같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면서 작가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더군.

15. <보기>를 치삼 노인이 그날 쓴 일기라고 가정할 때 잘못된 것은? [3점]

— <보 기> —

내가 왜 이럴 줄을 몰랐단 말인가?

㉠멀쩡히 갖고 있던 땅을 복 받겠다고 절에 시주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땅을 소작하게 될 줄이야.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고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오늘은 간평을 받는 날, 아들의 눈치에 밀려 호기 있게 나서 보았다.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절을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땅을 시주 받은 절의 중놈이 나를 구박하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① ㉠

② ㉡

③ ㉢

④ ㉣

⑤ ㉤

16. ㉠의 상황에서 고 서방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점]

- 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어찌겠어.
- ②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니까 조심해야지.
- ③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속으로 들어가야지.
- ④ 그래, 굴뚝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법이지.
- 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야.

17. ㉡에 담긴 인물의 진의(眞意)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 ① ‘이 지역에서는 메밀이 잘 자라는구만.’
- ② ‘가뜩이나 흉년인데 메밀은 그래도 잘 컸군.’
- ③ ‘앞으로 이 논에서는 메밀을 심는 것이 좋겠소.’
- ④ ‘메밀이라도 잘 됐으니 먹고사는 데는 지장 없겠소.’
- ⑤ ‘메밀이 잘 됐으니 소작료는 많이 부과할 수 있겠군.’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원전 3세기 경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모래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한 줌의 모래 속에 덧없는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장치다. 만약 모래시계 안에 모래 대신 물이나 다른 액체를 집어넣으면 시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물의 흐름은 모래처럼 일정하지 않다. 드럼통에 구멍을 뚫어 물줄기를 밖으로 흐르게 하는 경우, 구멍을 중간에 뚫었을 때보다 바닥에 뚫었을 때 물줄기의 흐름은 더 세다. 이처럼 액체는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 따라 물줄기의 속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모래시계를 물로 채울 경우 ‘물시계’의 물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늘어질 것이다. 또 물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은 표면 장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맺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모래시계는 모래를 사용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발명품인 것이다.

(나) 그렇다면 모래는 어떻게 위에서 누르는 모래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걸까? 물리학자 재거(Jaeger) 교수는 실험을 통해, 모래 더미의 경우 바깥 경사면만 액체의 성질을 나타내며 모래 더미의 중심부는 대부분 고체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모래시계의 경우 유리면에 닿는 경사 부분의 모래는 액체처럼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위에서 누르는 모래는 고체처럼 고정

되어 있다. 따라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모래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다) 1993년 저명한 물리학 저널에는 모래시계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모래 알갱이의 크기와 모래시계의 직경이 적당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물리학자인 샤오룬 위 교수는 이 논문에서 모래시계의 목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기압이 1만 분의 1이라도 차이가 나면 모래가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똑똑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가축을 키우는 곳에는 곡물이나 사료를 저장하는 ‘사일러’라는 원뿔 모양의 창고가 있다. 이곳에서도 곡물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 일정하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농업 관련 학자들은 모래시계의 연구에 큰 관심을 가졌다.

(라) 모래 알갱이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모래시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래 알갱이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주변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형태의 패턴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모래 알갱이들의 패턴이 비선형 방식으로 기술된다는 얘기다. 아직 모래 알갱이들을 기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안된 물리적인 모델들은 모두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를 띄고 있다. 두 번째는 모래 더미 스스로가 일정한 각도의 모래 더미를 유지하려는 ‘자기 조직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복잡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구성 요소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전체 시스템이 갖게 된다는 ㉠‘창발 현상(創發現象)’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래 알갱이로서의 고유한 특성은 잃지 않으면서도 모래 알갱이만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모래 더미가 갖게 된다는 점이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려는 성질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래 알갱이들을 모래 더미에 떨어뜨리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려 모래 더미는 자연스럽게 제 형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알의 모래 알갱이가 큰 산사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연쇄 반응’ 때문이다. 한 알의 모래 알갱이는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다른 알갱이들을 건드리게 된다. 이 알갱이도 따라 흘러내리면서 주위의 알갱이를 건드리게 되고 이런 연쇄 반응은 큰 산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모래 더미가 멈춤각보다 큰 각도로 쌓여 있을 경우 한 알의 모래 알갱이도 큰 산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정교한 실험으로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이를 이용해 지질학자들은 산의 모양이나 지형만으로 산사태의 가능성을 점칠 수도 있게 되었다.

18. 각 문단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가정을 통해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 ② (나) - 화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③ (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를 펴고 있다.
- ④ (라) - 화제가 주목 받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새로운 내용으로 논제를 전환하고 있다.

19.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모래시계는 기원전부터 발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 ②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으면 모래시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 ③ 멈춤각보다 경사각이 작은 모래 더미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진다.
- ④ 모래시계의 위 아래 압력이 다르게 되면 모래가 일정하게 내려가지 않는다.
- ⑤ 모래 알갱이와 모래 더미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광문은 비렁뱅이인데 다른 비렁뱅이들에게 꽤두로 추대되어 그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된다. 추운 어느 날 한 아이가 병에 걸려서 구걸하러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광문은 아이가 가엾어 밥을 빌어오

나, 아이는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만다. 이윽고 못 비렁뱅이들이 돌아와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광문이 죽었다고 오해하고 광문을 두들겨서 쫓아낸다. 광문은 도망가다 남의 집에 숨게 된다. 집주인은 처음엔 도둑으로 알고 광문을 묶었으나 오해를 풀고 광문을 풀어주게 된다. 광문은 거적대기를 얻어가서 죽은 아이의 버려진 시체를 공동묘지에 묻어주고 슬퍼한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집주인은 광문을 가혹하게 여겨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어느 날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보살피고 문밖을 나서면서도 그의 얼굴엔 편안치 않은 기색을 띠었다.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광문이를 의심스런 눈으로 보며 무엇을 말할 듯하다가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그치고 말았다.

광문이는 왜 그러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선 모르셨겠죠.”

한다. 그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이더러,

“나는 소인이야.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그려. 내 이제 무슨 냇으로 자네를 대하겠나.”

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물론이요,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

하고 널리 칭도하였다. 그는 또 그의 모든 종실(宗室)의 손님들과 공경(公卿)의 문하(門下)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곳마다 선전하였다. (중략)

이때 성안엔 돈놀이꾼이 많았다. 그들은 대체로 수식품(首飾品)이나 구슬·비취옥 따위 또는 옷가지·그릇·주택·농장·비복 등의 문서를 갖고 밀천을 계산해서 전당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였다. 그러나 광문이는 유독 남의 보증(保證)을 해주되 전당의 유무를 묻기 전에 친낭이라도 대변에 승낙해 버렸다.

(가) 광문이의 위인을 말한다면 그의 꼴은 몹시 더럽고, 그의 말은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며, 입이 특히 넓어서 두 주먹이 한꺼번에 여유 있게 들락날락하였다. 그는 또 만석(曼碩)중놀이, 첼피춤에 능수였다. (중략)

광문이 길에서 싸움하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훌훌 벗어 젖히고는 함께 싸움에 가담하는 체한다.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을 지껄이는지 머리를 숙여 땅을 그으면서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본 저자 사람들은 모두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면 싸우던 이도 역시 웃지 않을 수 없어 모두 흠어져 버리고마는 것이었다.

광문이는 나이가 마흔을 넘었음에도 총각머리를 땀었다. 남들이 장가가기를 권하면 그는 곧,

“도대체 예쁜 아가씨는 누구든지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나 이는 사내만이 그런 것은 아니요, 저 여인들도 역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 수 있단 말이야.”

했다. 남들이 혹시 그에게 살림살이를 차려 주려 하면 그는,

“나는 부모도 아니 계시고, 형제 처자마저 없는 인간이니 무엇으로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야.

(나) 뿐만 아니라,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저자로 들어갔다가 해가 저물면 저 부귀가(富貴家)의 문턱 밑에 피로한 몸을 쉬지 않으우. 그리구, 서울의 호수(戶數)가 팔만에 날마다 그 처소를 옮기는 만큼 내 나이를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골고루 다니지 못할 게 아니우.”

하고 사양했다. (후략)

- 박지원, <광문자전>

*패두(牌頭): 우두머리, 두목

*만석(曼碩)중놀이: 음력 4월 초파일에 연희되던 무언의 인형극 놀이.

23. 밑글에 나타난 사건과 그 속에 그려지는 주인공의 인간적 덕성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남의 싸움을 말린 일 - 지혜
- ② 남에게 보증을 서준 일 - 용기
- ③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 겸손
- ④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일 - 정직
- ⑤ 어린 거지의 주검을 묻어준 일 - 인의

24. (가) 부분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바람직한 인간상의 필요 요건 제시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한 성격의 간접 제시
- ③ 개성 있는 생김새를 통한 독자적 존재성의 부각
- ④ 외양과 관련된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대한 단서 제시
- ⑤ 인물 됴됨이와 외양이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

25. (나)에 담긴 인물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한자 성어는? [2점]

- ① 풍찬노숙(風餐露宿)
- ② 자업자득(自業自得)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안분지족(安分知足)
- ⑤ 역지사지(易地思之)

26. 구술 면접 시험에서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거의 문어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언어를 문학으로 끌어들이어 언문일치의 문체를 확립한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 ② 서술을 지양하고 묘사를 위주로 하여 세부적인 측면을 상세하게 드러낸 것이 소설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이전의 소설과 다르게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전형적 인물을 보통 이하의 인물로 제시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 ④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적인 덕성과 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춘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소설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⑤ 비현실적 배경이 아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사건 전개의 배경으로 삼아 개연성이 높은 사건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 점이 뛰어납니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 번째 밀레니엄을 시작한 현대인에게 역사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을 선사했다. 섬세한 상황 제어 능력을 과시하며 세상을 매혹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가상현실로 채색하는 이 현란한 테크놀로지는 실로 인간 존재의 우울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기술인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그것은 폭력적이고 위험투성이인 실재 현실로부터 환상과 희열로 가득 찬 가상현실로 우리의 삶을 탈출시키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이 완속되면 아마도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은 불안한 현실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왜 현대인은 그토록 불안해 하는가. 그들의 영혼이 잠식될 수밖에 없었던 불안의 원천은 무엇인가. 매우 역설적이게도, 불안을 장악하고 마비시키는 그

최첨단 기술에 오히려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㉞**잠복하고** 있다.

우선 정보화 시대에는 천문학적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저장된다. 더구나 이러한 정보의 과장 효과는 이제 우리 삶의 대응 속도와 예측 능력을 엄청난 격차로 추월해 버렸다. 급격한 변동 속에 위험을 ㉝**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허무감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정보를 광속으로 유통시키는 정보통신 기술의 시장 침입으로 시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전 삶의 영역이 시장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품으로서만 가치를 지니며, 그 가치는 팔릴 때만 결정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존재자의 지속적 가치, 존재와 삶의 본질은 불필요하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처한 삶이 근거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은 허망하고 비효율적인 행위다. 그것은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의 구조를 외면하는 도태과정일 뿐이다. 이제 가치는 없고 가격만이 있을 뿐이다. 또 진리는 없고 순간적으로 검색 가능한 정보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오늘날 삶의 의미와 방향이 사회적 담론의 주제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그리하여 결국 삶이 어떠한 진리와 근원에 대해서도 사색하지 않는 허무주의로 방치되고 있다면, 삶의 심연에 드리워진 원초적 허무의 불안은 방향상실의 좌절 속에서 더욱 더 짙어지고 그 고통의 비명은 한층 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상공간 속에서 자아가 해체의 위험에 ㉜**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 다가올 시대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실재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유일한 육체는, 가상현실에서는 어떤 가상현실 게임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의 신체가 존재하는 현실이 다수로 파편화되면 나의 자아 역시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아가 해체될 때 우리의 육체는 통제력의 몰락을 경험하며 무절제한 방임 속으로 빠져든다. 이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대인은 점차 가상 공간으로 이주(移住)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현대인은 자아의 파편화란 상처를 ㉞**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초적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이 ㉟**용납할** 수 없는 역설로부터 탈출구는 있는가. 인간 존재가 원초적 불안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불안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안을 추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최첨단 수단 때문에 그것이 증폭되고 있다면, 그 증폭된 만큼의 불안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무주의에 방치된 삶의 의미를 사색하고 파멸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자아를 보듬음으로써 불안을 다스리고 진정시키는 반성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얕올한** 불안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27. 밑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최근 아바타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아바타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이를 꾸미고 치장하며 자신의 대리인으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얻고 있다.

- ① 이전의 인형 놀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상공간으로 옮겨온 것일 뿐이야.
- ② 청소년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인들도 아바타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 ③ 유행은 언제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질 거야.
- ④ 청소년들의 취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어.
- ⑤ 아바타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체성을 상실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거야.

28. <보기>는 윗글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보 기>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 RE : 정보화 시대는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①

↳ RE : 그렇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인류에게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사소한 부작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②

↳ RE : 정보화 사회가 주는 표면적인 이점에만 주목하는군요. 하지만 정보화 사회가 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인문적 교양을 쌓아야 하고 열린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③

↳ RE :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의 질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얻은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과감히 돌아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④

↳ RE : 정보화 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시는군요. 기계는 인간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변화무쌍한 판단보다는 더 정확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⑤

29.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간이 만든 최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자유에 대한 구속은 심해지고 있다.
- ②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인간의 불안은 원천적인 것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④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술에 대해 흔히 알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 ⑤ 인간은 가상현실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 알면서도 가상현실에 점점 더 집착하고 있다.

30. ㉡의 함축적 표현에 담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삶을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② 자아의 파편화를 겪는 개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③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④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⑤ 삶에서 방향상실감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31. ㉢~㉥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근원적으로 없앨
- ②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 ③ ㉤ 적절히 조절할
- ④ ㉥ 맞닥뜨리게
- ⑤ ㉦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春雨暗西池
 ㉡찬 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제 輕寒襲羅幕
 뜬시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 愁依小屏風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牆頭杏花落

- 허난설헌, <비>

(나)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리라, 달 드리라.
 靑簫笠(청약립)은 싸 잇노라. 錄蓑衣(녹사의) 가져오나.
 至匆憇(지국충) 至匆憇(지국충) 於思臥(어사와)
 無心(무심)한 ㉣白鷗(백구)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水國(수국)의 ㅁ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저 일다.
 달 드리라 달 드리라
 萬頃澄派(만경딩파)의 슬크지 容與(용여)흐자.
 至匆憇(지국충) 至匆憇(지국충) 於思臥(어사와)
 人間(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간 밤의 눈 갠 後(후)의 景物(경물)이 달랑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頃琉璃(만경유리) 뒤희는 千疊玉山(천첩옥산),
 至匆憇(지국충) 至匆憇(지국충) 於思臥(어사와)
 仙界(선계)ㄴ가 佛界(불계)ㄴ가 人間(인간)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다)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더 내니,
 窓(창) 밧긔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ㄹ득 冷淡(녕담)흔디 暗香(암향)은 므스 일고.
 黃昏(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터 비쳐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었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질렸논디,
 羅幃(나위) 寂寞(적막)흐고 繡幕(슈막)이 뷔여 잇다.
 芙蓉(부용)을 거더 노코 孔雀(공작)을 둘러 두니,
 ㄹ득 시름 한디 날은 었디 기뻐던고.
 鴛鴦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식선) 플터내여,
 금자히 견화이서 님의 옷 지어내니,
 手品(슈품)은크니와 制度(제도)도 ㅁ줄시고.

珊瑚樹(산호수) 지게 우희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里(천리) 萬里(만리) 길흘 뉘라서 촌자 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리 넬 제,
 危樓(위루)에 혼자 올라 水晶簾(수정렴) 거든말이,
 東山(동산)의 돌이 나고 北極(북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청광)을 뷔여내여 鳳凰樓(봉황누)의 붓티고저.
 樓(누) 우희 거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취여,
 深山窮谷(심산궁곡) 점낫ㄴ티 밍그쇼셔.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하야 白雪(백설)이 혼 빗친 제,
 사람은크니와 놀새도 굿쳐 잇다.
 瀟湘南畔(쇼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高處(옥누고처)야 더욱 닐너 무숨흐리.
 ①陽春(양춘)을 부쳐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저.

- 정철, <사미인곡>

32. (가) ~ (다)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점]

- ① 과거 회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주어진 현실 상황에 대하여 체념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대하여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3. (가)와 (다)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당신은 이별한 님을 만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시는군요.
- ② (다) : 하지만 마음 뿐이지 현실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③ (가) : 그래도 당신이 지은 옷을 님에게 보낼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 ④ (다) : 그러는 당신은 외로움과 시름에 잠겨 아무 일도 못하고 있군요.
- ⑤ (가) : 예, 저는 허망하게 지나가는 젊은 날을 안타까워 할 뿐입니다.

34.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점]

<보 기>

어떤 정서나 사상을 나타내려 할 때, 이를 나타내 주는 어떤 사물이나 정황,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물, 정황, 사건을 가리켜 객관적 상관물(客觀的 相關物)이라고 한다.

① ㉠

② ㉡

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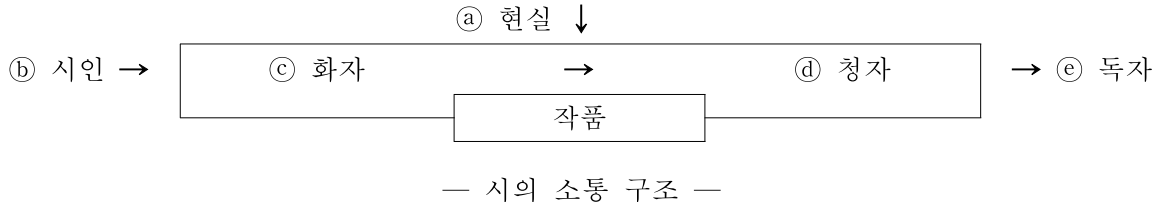
④ ㉣

⑤ ㉤

35. <보기>는 (나)의 창작 배경을 나타낸 것이다. 시의 소통 구조에 따라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의 사부 노릇을 맡았던 작가는 병자호란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알고, 다시 벼슬 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자연 속으로 깊이 숨었다. 이 노래는 작가가 나이 67세 이후 전남 보길도의 부용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 ① (a) : 농촌과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서민의 일상적 삶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여 준다.
 ② (b) :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③ (c) :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④ (d) : 자연을 마음껏 즐기자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청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⑤ (e) : 도시와 기계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살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36. <보기>는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에 관한 시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겨울 속에 봄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시적 자아가 자기 뜻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곳에 비치게 하겠다는 말로 표현하고 한다. 아직 봄이 되지 않았으니 봄별이 있을 수 없으나 지극한 사랑은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초월해서는 그 자연적 질서를 자기의 주관대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한 것이다.

- ①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어머니의 정다웠던 목소리가 더욱 그리워지네.
- ② 산 그림자처럼 말없이 세상을 사셨던
 안으로 다스리는 청자빛 맑은 향기
 오늘도 어머니의 향기가 그리워 눈물 흘리네.
- ③ 함박눈을 맞으며, 아기들이 놀고 있다.
 아기들은 매우 즐거운 모양이다.
 어머니도 아이들을 보시며 한없이 즐거워하시네.
- ④ 무심히 흐르는 세월의 옷자락을 붙잡아
 다홍치마 초록저고리 만들어
 고왔던 어머니의 젊음을 되돌리고 싶네.
- 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을 원통해 할 때
 어머니가 남겨 놓은 단풍잎 하나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보면 부끄러워 얼굴이 다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대중 예술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진다. 대중 예술 역시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사 소통의 일종으로, 주로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 대중 예술은 간단히 말해 비슷한 경험, 흥미, 가치 또는 취향을 공유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예술 형식이다. 시, 그림, 조각, 희곡, 교향악 그리고 발레와 같은 것들이 보통 순수 예술로 간주되는 반면에, 영화, 만화, 텔레비전 쇼나 댄스뮤직 등은 대중 예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어떤 예술 작품들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중적이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극장에서 공연되어 그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겼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잡지에 연재되었던 것들이다. 이 희곡과 소설들은 시간의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오늘날 순수 예술의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20세기의 산물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한때 영화는 그저 대중적인 오락물로 간주되었지만, 그 중에서 점차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본격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고급 예술로 대접받는 작품도 생겨나게 되었다. 또,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되었던 사진도 지금은 예술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뛰어난 사진 작품들은 예술적인 그림이나 조각을 전시하던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반대로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 릿시니,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오랫동안 대중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바흐의 음악이 ㉡전자음 합성 장치에 의해 녹음되었을 때나, 모차르트, 릿시니, 슈트라우스의 음악이 ‘엘비라 마디간’이나 ‘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 같은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삽입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순수 예술의 범주에 남겨 둘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진정한 대중성이란 대중에 얼마나 폭넓게 전달되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폭넓은 전달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순수 예술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대중 예술의 영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처음 연주되었을 때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오랫동안 소수의 재즈 팬들 사이에서만 그 가치가 평가되던 조플린(Scott Joplin)의 음악도, 영화 ‘스팅’의 주제 음악으로 사용되어 ㉢음반으로 재생산되고 라디오로 방송되면서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물론, 모든 대중 예술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이나 조플린의 재즈 음악처럼 우수하거나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매스 미디어는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 평범한 예술을 널리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매스 미디어는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 외에는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사소하고 걸만 번지르르한 예술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대중 예술이 단지 그것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허위의식은 잠재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린다.

매스 미디어는 대중 예술을 대중적이게 만든다. 더 본질적인 수준에서는 대중 예술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 준다. 사진은 ㉣카메라나 필름이 없었다면 예술 형태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진은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수단들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된 후에야 대중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수단들은 파리나 암스테르담,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나 네덜란드 거장들, 그리고 아메리카 고딕 같은 그림들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작가가 자신의 고독한 작업실에서 쓴 소설도, 만약 수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없었다면, 단지 몇몇 소수의 부유한 애호가들의 서재에 필사본으로서만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와 대중 예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스 미디어는 창조적인 표현을 위해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대중 예술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대중 예술은 그 맞은 편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새롭고 세련된 매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대중들은 이 두 영역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3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대중 예술 중에는 높은 예술성을 가진 것들도 있다.
- ② 대중 예술은 매스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③ 대중 예술은 소수에 의해서 향유될 때 순수 예술로 바뀌게 된다.
- ④ 대중 예술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사 소통의 일종이다.
- ⑤ 순수 예술도 대중 예술이 될 수 있고, 대중 예술도 순수 예술이 될 수 있다.

38. ㉠~㉡중 문맥상의 의미가 다른 것은?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나무 : 숲
- ② 연설자 : 청중
- ③ 생산자 : 소비자
- ④ 희곡 : 연극 배우
- ⑤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40. 밑글의 중심 주장을 들어 <보기>의 글을 비판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3점]

— <보 기> —

음악에는 많은 장르가 있지만 그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술적으로 뒤진다고 생각한다. 대중 음악은 분명 서양의 고전 음악 또는 우리의 아악이나 판소리에 비해 그 예술성이 뒤진다. 마치 만화가 수채화보다 예술성을 덜 생각하듯 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악가와 가수의 사회적 지위도 달라진다.

- ① 음악에서 즐거움을 빼면 무엇이 남겠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호에 맞는 음악을 찾아서 즐기면 되는 게 아닌가.
- ② 대중 가요도 예술성이 높다면 고급 예술이 될 수 있어. 특정 장르의 모든 작품을 예술성이 낮거나 높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 ③ 성악과 대중 가요는 수요 계층이 다르잖아.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선호하는 수요 계층은 아무래도 성악을 즐기는 쪽이 아닐까?
- ④ 서양의 고전 음악과 우리의 판소리는 각기 호소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이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데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 ⑤ 성악가는 대중 매체와 거리가 있어 희소성 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가수는 대중 매체에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폄하되는 것이 아닐까?